

추석가정예배순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아현중앙교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추석가정예배순서

인도자 : 가족 중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시간을 정한 후, 복장을 단정히 하고 모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인도자, 기도자를 정합니다.

*각 가정은 예배문을 참조하여 가정형편에 맞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식 사 인 도 자
오늘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다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 용 한 기 도 인 도 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
지어다 (시편 29:1-2)

찬 송 288장 다 같 이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기 도 가 족 중 에 서
성 경 봉 독 느 헤 미 야 12:26-30 가 족 중 에 서

26.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27.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28.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29. 또 벤길갈과 계바와 아스마웁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30.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설 교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인 도 자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벽과 망대를 모두 수리하고 재건했습니다. 그 후에 성벽 봉헌식을 준비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축제가 되도록 각 지방에 흩어져 사는 레위인을 불러 모읍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거룩한 삶의 시작은 거룩한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입니다.(30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들의 예배하는 삶을 통해 높임을 받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결함을 훼손하려는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결함은 현재의 문제이자 사는 동안 이어질 평생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열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패하고 좌절하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무너진 삶과 영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능력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 송 420장(또는 가족이 좋아하는 찬송) 다 함 께
기 도 가족 중에서
주 기 도 문 다 함 께

성묘 가서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 (혹은 조상)의 무덤 앞에 모여
잠시 동안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송 : 438장(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즐겨 부르시던 찬송)

◦명절에 부모님을 추모하며 드리는 기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명절에 흠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부모님이 저희를 기르실 때 가난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
명절에도 시름이 많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니
부모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때때옷으로 차려입고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못 다한 효도를

자식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형편에 낙담하지 않고

묵묵히 희망의 터전을 일구다 가신 부모의 본을 따라

저희들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 창세기 32 : 21 - 30

◦설교 : (생략할 수 있다.)

◦찬송 : 490장

◦주기도문